

I. 역사 학습의 기초

오리엔테이션) 역사란 무엇인가?

학 교	
학 번	
이 름	

1.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1) 다음 문장을 보고 이 내용이 사실로서의 역사인지, 기록으로서의 역사인지 구분해 봅시다.

- 1397년 세종 대왕이 탄생하였다.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 세종 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다.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일제의 통치에 저항하는 만세 시위가 나타났다.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 고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농민 봉기였다.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2)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의미를 구분해 봅시다.

※ 아래의 내용 중 관련된 내용을 붙이고, 관련 없는 내용은 버리는 부분에 붙여 봅시다.

- 사실로서의 역사: 역사란 ()에 일어난 () 그 자체로 역사가의 ()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
- 기록으로서의 역사: 역사란 ()에 일어난 ()을 역사가가 의미있다고 ()하여 ()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
- ※ 랑케와 E.H. 카의 입장차이
- 역사가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사명은 과거의 사실을 심판하거나 후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원래 어떠하였는가(wie es eigentlich gewesen)'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 () -
- 역사가 없는 사실은 알맹이가 없고, 사실 없는 역사가란 뿌리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가 그것을 불러내어 해석할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따라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 () -

3)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

기원전 326년,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알렉산드로스는 더 먼 동쪽인 인도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북부의 펀자브 지역에 도착했을 때 강 건너편에는 파우라바 왕국의 강력한 군주 포루스왕이 수많은 병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는 뛰어난 전략으로 포루스왕의 군대를 물리쳤고 그를 포로로 잡는데까지 성공하였습니다. 포루스를 마주한 알렉산드로스는 그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포루스는 "나를 왕처럼 대우하라"라고 답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포루스를 죽이는 대신 그의 왕위를 유지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더 넓은 영토까지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승리와 달리 마케도니아 군대는 처음 겪어본 코끼리 부대와와 처절한 싸움과 인도의 거친 환경으로 인해 큰 공포와 피로를 느꼈으며 결국 더 이상의 진군을 거부하는 병사들의 반대에 부딪힌 알렉산드로스는 인도를 정복하겠다는 꿈을 멈추고 회군을 결정하게 됩니다.

(A)
알렉산드로스가 포루스에게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포루스는 '왕답게'라고 대답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의 당당함과 용기에 크게 감동했다. 그는 포루스를 죽이기는커녕 그에게 왕국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해주었다.

(B)
알렉산드로스는 포루스를 정중하게 대접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알렉산드로스는 인도에 겨우 몇 달 머물렀을 뿐이며, 그가 떠나자마자 그의 영향력은 썰물처럼 사라졌다. 그는 그저 명예욕에 사로잡힌 젊은 정복자였을 뿐, 인도의 깊은 역사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주지 못했다.

구분	(A)	(B)
관심사		
포루스와의 일화를 통해 드러낸 알렉산더의 모습		
저자의 메시지		

2. 우리는 역사를 왜 배울까요? (옳은 내용에 모두 체크(✓)하세요)

- () 과거의 삶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교훈을 얻기 위해
- ()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 () 역사적 사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며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 ()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자세를 배우기 위해
- () 자랑스럽고 위대한 역사의 내용만을 기억하고 이를 통해 다른 국가나 민족에 대한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
- ()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유구한 역사나 전통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 역사자료의 구분, 유물과 유적의 차이점

주먹도끼	서울 암사동 선사 주거지	빗살무늬 토기	무령왕릉 금제 관장식
공주 무령왕릉	이집트 쿠푸 왕의 피라미드	로제타석	함무라비 법전 비석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경주 석굴암	비파형 동검	양부일구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	로마 콜로세움	파르테논 신전	모헨조다로 도시

4. 사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나라 양제의 고구려 침공과 관련된 기록은 중국의 역사책 『수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동원한 군대는 총 1,133,800명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군대의 행렬이 960리(약 380km)에 달했으며, 군대가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다고 한다. 보급을 담당할 인원까지 합치면 그 수는 두 배에 달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인데, 군대 행렬이 그만큼 길었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교통과 식량 보급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시에 이동하고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나폴레옹에 대해 들어보셨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폴레옹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인 '자유와 평등'을 유럽 전역에 전파한 영웅으로 그가 만든 '나폴레옹 법전'은 신분제 사회를 무너뜨리고 근대 법 제도의 기초를 닦았다고 보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는 자신의 권력 욕심을 위해 유럽 전체를 피로 물들인 침략자이다. 스스로 황제가 되어 민주주의를 배신했으며, 다른 나라의 자유를 짓밟은 잔인한 독재자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군 신화에서는 "하늘 신의 아들 환웅이 바람(풍백), 비(우사), 구름(운사)을 다스리는 신하들과 함께 내려와 곡식, 수명, 질병, 형벌 등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다스렸고,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곰은 쑥과 마늘을 먹으며 21일을 견뎌 여자가 되었고 환웅과 결혼하여 단군왕검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늘 신과 곰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일까요?	예전에 무령왕에 대한 역사 기록에는 무령왕은 550년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1971년 공주에서 발굴된 왕릉의 지석에서는 "백제 사마왕(무령왕)께서 나이 62세가 되는 계묘년(523년) 5월 7일에 돌아가셨다. 525년 8월 12일에 이르러 대묘에 안장하며, 이 기록을 남긴다. 또한 토지신에게 돈 1만 문을 바치고 이 땅을 무덤 부지로 사들였음을 밝힌다."고 쓰여있어 이를 통해 우리는 무령왕의 정확한 사망년대를 알게 되었다.

5. 역사 탐구의 절차

※ 역사 탐구의 절차와 관련된 아래의 만화를 순서대로 정리해보세요.

	⇒		⇒		⇒	



6. 역사 학습과 관련된 기본 용어

- 기원전과 기원후: 일반적으로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예수 탄생 이전을 기원전인 ()로, 예수 탄생 이후를 기원 후인 ()로 표기
- 황제의 즉위, 혹은 기념할 만한 해에 붙이는 이름인 ()
 - 황제의 즉위나 기념할 만한 해에 자신이 붙이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를 ()라고 한다.
 - 우리나라는 대체로 중국의 ()를 사용했으나 종종 우리나라의 ()을 보여주기 위해 연호를 사용한 사례가 있음.

영락 .

조선 고종

준종 .

발해 무왕

인안 .

고려 광종

광무 .

고구려 광개토왕

- 세기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둡시다.

